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害)를 두려워 말라

작성일 : 2012. 9. 19.(수) 오전 9:30

작성자 : 장정임

(출근길에 꺼림칙한 눈빛으로 계속 훑쳐보는 남자가 있어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흥흥한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약자들이 수시로 악인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끔찍해서 사탄과 악인들을 멀해 달라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오직 나와 항상 교통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때마다 내가 주는 감동을 받아 앞날을 예견하고 나의 지혜를 받아 화를 면하고 살 수 있는 것이다.”하셨고 이어 목상할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왜 나와 통해야만 하는지 알겠느냐?
삶 속에서 왜 나와 늘
교통해야만 하는지 깨달았느냐?

그러하다.
진정 너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거하며 살 때
나의 도움이 없이는
마치 맹인이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처지로
살 수밖에 없음이니라.
한 치 앞도 분간치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모퉁이를 돌아서면
어떤 끔찍한 일이 닥칠지도 모르면서
웃고 떠들며 모퉁이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 모습이다.

알면 그 길을 가겠느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다면 그리 행하겠느냐.
모른다. 인간은 너무나도 모른다.
맹인이 지팡이도 짚지 않은 채
절벽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과 같이
진실로 겁 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 인생들이다.

(주님, 가끔씩 꿈에 캄캄한 밤길을 빠른 속도로 운전하며 가는 제 자신을 보곤 합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막 속도를 높이면서 핸들을 이리저리 꺾

으며 달리는 꿈이지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겁을 먹은 채 달려가지만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어딘가에 도착해 있는 저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그 모든 것이 저의 현실을 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여러 번 반복하여 꾸었어도
그 꿈이 의미하는 바를 몰랐었지?
이제 깨닫겠느냐.

(네, 제 인생이 도처에 깔린 위험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위태롭게 산 인생이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달렸지만 주님 늘 지켜 주셨기에 오늘, 지금의 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진정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생은 모르고 산다.
내가 얼마나 저들을 돕고 지키고 보호하는지
몰라서 감사감격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나를 알아주어도,
혹은 몰라주어도 내 사랑하는 너희 인생들을
늘 그리 지켜 왔고 또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아무리 위험을
암시해 주고 막아준다 하여도
내 보호와 주권 안에서
살기를 싫어하여 떠난다면
나 역시 지켜 줄 수가 없다.
위험을 알리는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엄밀히 말하면
마음으로 들어야만 들리는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기에 들을 수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나의 범망을 벗어나 살고
나의 율타리를 벗어나 사는 자를
지켜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분명 율타리를 벗어나면
사자와 이리와 늑대에게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을
수없이 알려 주었어도
이를 어기고 기어이 나간다면
나 역시 지켜 줄 수가 없다는 말이다.

선생 통해 외치는 이 시대 말씀은

너희를 지키는 법이요 울타리이다.
이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 울타리가 너무 좁다 여기는 자 있느냐?
아니다.
이 안에서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무궁무진하다.
좁은 방안에 갇혀 있기만 해도
사랑하는 자와 함께만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쁨이요, 행복이나.
넓디넓은 바다를 누린다 하여도
사랑하는 자가 없으면
푼대 잃은 항해에 불과하다.

내가 여기 안에 있노라.
내가 섭리사에서 너희와 사랑하며
모든 행복과 기쁨을 다 나누고자 여기 있노라.
그러하니 이곳을 벗어나지 말아라.
울타리 끝에 서서 저 바깥세상을
미련 가득한 눈빛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오직 울타리 한가운데 서 있는 나를 보고
내게 가까이 더 가까이 와서
환희와 기쁨의 세계를 누리 보아라.
내 손잡고 나와 일체 되어 살면
내가 어디로 향하든 내가 결단코 지키리니
내게 복이 차고 넘치리라.
좌로 향해도 평탄함이요,
우로 향해도 기쁨일지라.
네 스스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하여도
내가 너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
미리미리 위험을 알리고 느끼게 해 줄 터이니
너는 오직 나와 일체 되어
내 손잡고 내 품안에 안겨 살기만 하면 된다.
내가 다 채워 주고 지켜 주고
기쁨에 넘치게 하리라.

그리 하고자 너를 창조하였노라.
너와 내가 일체될 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너 없이 나는 아무 의미 없으며
나 없이는 너도 그 존재함에
아무 의미가 없노라.
함께하자.

사랑으로 너와 나, 하나 되자.
그리 될 때 전능한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하며 행하니
그 때는 울타리를 벗어나
그 어떤 곳을 다닌다 하여도,
생명을 해하고 위협하는
모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 어떤 해됨과 상함도 없이 형통할 것이며
평안과 안위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니라.

[시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나의 신부된 자를 지키지 않겠느냐.
나의 팔에 능력이 부족하겠느냐.
불길 속에서도 너를 보호할 것이요,
사자의 입에서도 너를 구해 낼 것이니라.

사랑하고 사랑한다.
오늘도 사랑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나는 네게 눈이 되고
너는 내게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길
진정 바라고 원하노라. 성자 주니라.